

창조세계의 희망과 구원의 확실성 (로마서 8:18-39)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8:37)

바울은 ‘현재적 고난과 미래적 영광’이라는 주제를 세 단계의 점층적 발언으로 전개한다. 피조물의 탄식(19-22 절), 하나님의 자녀들의 탄식(23-25 절), 성령의 탄식(26-27 절).

전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고대한다. 즉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들과 맺는 교제를 종말적 영광으로 완성하시고 확정하시기를 사모한다. 왜냐하면 그 때에야 나머지 피조물들도 파멸과 썩어짐으로부터 해방될 것이기 때문이다. 피조물이 잘못된 것이 없어도 썩어짐 말려 든 것은 그들을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은 것이다. 즉 그들은 아담의 타락을 통하여 또는 하나님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 야기된 저주의 세력에 피조물을 넘겨주심으로써 그렇게 되었다(창 3:17-18 참조). 전체 사고 과정은 장차 올 영광의 보편성을 강조하는 데 역점이 놓여 있다.

기독자들도 역시 목표점에 이르지 못했다. 그들은 미래적 완성에 대한 선착금과 보증으로서 성령을 받았다(고후 1:22 와 관련 구절 참조). 그렇지만 그들도 또한 끈질기게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완성이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시련과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고대한다(23 절). 24-25 절은 소망이 무엇인지를 짚막하게 정의한다.

하나님의 영도 역시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을 편들어 주신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 마땅하게 기도해야 할지를 모른다.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 완전한 규모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 성령은 하나님의 언어로 하나님께 말씀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혹과 지상적 한계로 왜곡된 우리의 탄식, 말로 표현하지 못한 우리의 탄식을 이해하신다(27 절). 주석가들 가운데는 바울이 여기서 방언의 은사를 암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바울은 열광주의자들의 견해와 반대로 방언의 은사를 천상적 환희의 선취로 여긴 것이 아니라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언어 도움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28-30 절은 18 절의 주제를 계속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들은 기독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 자신의 충동으로 이 사랑을 산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부르심에 이 사랑으로써 응답한 것이다)에게는 모든 것, 고난도 또한 선을 이루는 데, 즉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28 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본질, 그의 사랑과 영광은 그리스도 형상 안에서 비친다. 이 형상을 본받는 것이 구속의 길이요 목표점이다(29 절; 고후 3:18; 4:4; 골 1:15). 미리 정하심(예정)과 부르심에 관한 발언들은 구원받는 사람의 수적 한계를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결단을 앞질러서 인간을 위하여 취하시는 하나님의 결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의 신뢰성이 이것에 대응한다. 이 구원의 길의 과정을 29-30 절에서 열거한다. 이 구원의 길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 영화롭게 하심에 관하여 이미 과거형 시제로 말했다.

여기서 바울은 지켜 주심과 건져 주심의 확실성에 대한 가장 심오한 근거를 든다. 하나님은 우리편이다(우리를 위하시면). 자기의 아들을 인간의 곤궁 속으로 내어 주신 것은 결코 속이지 않는

그의 사랑의 확실한 표시이다(31-32 절). 거기에 맞서서 무슨 시비를 걸 수 있는 고발자는 아무도 있을 수 없다.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신다(33-34 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죽으심으로 이은 흔적이 없이 완벽하게 인간의 곤경과 어울렸기 때문에 어떠한 불행도 어떠한 핍절도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다(35-36 절). 36 절의 시편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한' 고난의 불가피성을 근거 짓는다(주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에서 입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은(39 절) 외적인 좌절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승리를 감지하게 하며(37 절), 우리의 삶을 규정하거나 위협하는 권세자들과 현실적인 것들과 생의 모든 차원들의 아무것도, 아니 피조물의 아무것도(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와 이 사랑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다 (38-38 절. 고전 3:2 참조. 여기서 천사들이란 타락한 반신적 천사를 염두에 둔 것이다. 고전 6:3; 고후 12:7; 엡 6:12 참조)